SkyeDaily 스카이데일리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022면 전국

국회 외통위, 경주 찾아 "APEC 정상회의 준비 잘 돼갑니까"

여야 의원 13명 방문… 미디어센터·의료 대책 등 추진 상황 점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경주를 방문해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상북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경주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24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은 APEC 유치 이후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첫 번째 방문이라는 것과 함께 복잡한 정치 상황에 따른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여야 의원 13명이 함께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10월 말 열리는 APEC 현장을 둘러본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외통위 위원들은 먼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주요 기반 추진 상황과 수송·교통, 숙박, 의료대책 등 지방 차원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세세하게 보고받았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 회원국 대표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 우려가 있었는데, 정상회의의 사전 리허설 성격인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대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며 미비점을 완벽히 보완해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장 안내를 맡은 김상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2005년 부산 행사와는 달리 정상회의장 외에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최신 공법을 도입하는 등 정상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완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진행 상황 보고에 이어 위원들은 화백컨벤션센터 내부 정상회의장과 야외 미디어센터 조성 예정지를 둘러보고 10월 주요 회원국 지도자들과 대표단,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제공할 시설에 부족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했다.

현장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점검하던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경북과 경주시가 APEC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의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에 위원들은 회원국 정상들과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이 머물 숙박시설 현장을 차례차례 둘러보고, 문화행사 예정지인 불국사와 만찬장을 조성할 국립경주박물관도 방문했다.

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지붕 없는 박물관 세계문화유산도시 경주의 매력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며 왜 경주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경주 유치의 원동력은 경주가 가진 문화와 역사의 힘이다. 이번 APEC을 통해 경북·경주의 문화적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경주가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